

완도 슬로시티 확대로 관광자원화 '시동'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발전 방안·전략 논의 특색 있는 섬·해양치유산업·섬재생 프로젝트 등

완도군은 최근 슬로시티 완도 전 지역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슬로시티본부 관계자와 군청 부서장이 모여 ▲특색 있는 섬 만들기 ▲해양치유산업과 섬재생 프로젝트 결합 ▲섬과 섬의 연결을 통한 관광객 동선 확대 등 완도 슬로시티 제3기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4월 완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이에 군은 슬로시티 발상지로서의 발전 방향과 완도 전 지역 확대를 통한

권역별 관광자원과 슬로시티 운동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잘 사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10월 국가 지원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 선정과 더불어 국내 최초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가고 싶은 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국내 유일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정비 사업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슬로시티 전 지역 확대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군수는 "지자체 소멸 위기



완도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슬로시티 완도 전 지역 확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위해서도 슬로시티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과 전략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보고회 때까지 보완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 인증 이듬해인 지난 2008년 관광객이 8만 8,000명 정도였으나 10년 후인 2017년에는 34만 4,000명으로 늘어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완도군은 세종대 관광산업연

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기획한 2018 여름휴가 여행 조사-국내 여행지 만족도 기초자치시·군 종합만족도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2위로 평가받았다.

/완도=최규옥 기자

내고장 일꾼



명현관 해남 군수는 5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전동평 영암 군수는 5일 오전 10시 10분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신우철 완도 군수는 5일 소안면에서 어업현장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전복산업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남 저온유통구축사업 선정 화원·문내농협...총 10억 지원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됐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 시설을 확충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화원농협은 저온저장고 개보수에, 문내농협은 선별장 신축으로 각각 사업비 4억원과 6억원을 지원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한 배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채소류 가격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준비로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박민서 제8대 목포대 총장 직무 시작

오는 12일 도림캠퍼스 기념관에서 취임식

국립목포대학교 제8대 총장으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돼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9일 제8대 총장임명후보자 재선거에서 총장임명후보자 1순위로 선출돼 교육부로 추천된 박민서 교수는 이번에 임명동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청와대로부터 정식 임명 공문을 받게 됐다. 이로써 총장 공백상황이 해소된 목포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9개월간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됐다.

박민서 신임 총장은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동국대

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목포대 학생지원처장, 평생교육원장, 복지사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연구회 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장,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재)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박민서 총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4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12일 목포대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암 국민디자인단 우수기관 선정

민·관 합동 재난재해·생활안전사고 대응

영암군은 최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는 국민이 정책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214개 디자인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30개 기관을 선정,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영암군 국민디자인단은 '안전 골든

타임, 마을안전지킴이 OK~'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 정책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군 국민디자인단은 경찰서와 소방서·행정기관과 대학교수, 언론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발족하고 금정면 청룡리, 세류리, 쌍호리 마을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난재해와 각종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수요자 중심 정책을 개발해 왔다.

디자인단은 그동안 현장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 민·관 정책회의를 통해 ▲독거노인과 마을 대표 간 비상벨 설치 ▲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가정 내 부착 등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 안전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 참여형 우수 정책 개발 사례로 인정 받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공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사업을 11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형배 고구려대학교 총장이 '신안군 1004 캠퍼스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고구려대 업무협약 체결

1004 캠퍼스 운영...교육과정 등 지원

신안군과 고구려대학은 공무원 현장교육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안군에 2개 계약학과 설치 운영을 협력하는 '신안군 1004 캠퍼스 운영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형배 고구려대학교 총장은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지원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양측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기로 했다.

고구려대학교는 내년부터 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안군의 행정수요에 발맞춰 원예조경학과, 청소년 복지상담과 2개 계약학과를 개설한다.

퇴근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이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신안군청내에 1004캠퍼스를 운영기로 했다.

수강 모집인원은 학과당 15명이며 2년 4학기 과정으로 등록금의 50%를 군에서 지원한다.

박 군수는 "지금까지는 도서지역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지원을 통해 직원들을 현장 맞춤형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복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285-9816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무안 010-3621-8989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목포 사랑의 밥차 올해 마무리

목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일정을 마치고 동절기인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단한 후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사랑의 밥차는 올해 31회 운영해 1만6,945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528개 단체에서 2,202명이 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진도 동그라미회 김장김치 전달

진도군 임회면 봉사단체인 '동그라미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동그라미회 강금순 회장과 회원 20여명은 김장김치를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외계층 110세대에게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강 회장은 "정성과 사랑으로 담긴 김장김치를 새하얀 쌀밥위에 올려맛있게 드실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등을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자치분권대학 수료식

영암군은 최근 영암도서관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대학 영암캠퍼스 수료식을 가졌다.

자치분권대학은 29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핵심 공동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지방 분권의 추진 동력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지방 분권의 필요성 등 지방자치 및 분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강진읍 경로당 활성화·정산 교육

강진읍은 최근 복지관에서 마을 경로당 임원과 부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당 활성화교육 및 운영비 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사용 기준, 정산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은 보조금의 사용기준, 정산방법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회계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강진=한태선 기자